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17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상호금융 '주담대 금리 역전'…수개월째 지속

이데일리 https://zrr.kr/UDITO7

지난 1월 상호금융권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전월대비 0.01%p 오른 연 4.01%를, 같은 달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6%를 기록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은 금융채 5년물(AAA) 금리가 뛰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가계부채 대책 지연에 DSR 확대론…은행 대출문턱 높아지나

더팩트 https://zrr.kr/InEKII

당초 설 연휴 이후 발표가 거론됐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연되면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넓히는 시나리오도 재부상

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 검토

조선비즈 https://zrr.kr/farhr3

우리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보험 계열사인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또 다른 보험 자회사 ABL생명은 재매각하지 않고 동양생명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금가분리' 완화 첫단추…은행 지분투자 허용 유력

매일경제 https://zrr.kr/C5UpBe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금가분리' 규제가 9년 만에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
시장에서는 은행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에 원활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실효성 있는 금가분리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핀딘

키움證 발행어음 수신잔고 1兆 돌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cSnE1i

키움증권이 지난해 말 '키움 발행어음' 출시 이후 약 3개월 만에 발행어음 수신 잔고가 1조원을 돌파
키움증권은 올 상반기까지 약 2조원 수신을 목표로 발행어음을 판매 및 신규 모험자본 6000억원을 공급할 방침

롤러코스피에 개미들 '움찔' 미수금 일주일새 절반 줄어

매일경제 https://zrr.kr/1luruZ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5일 2조148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3일 1조1118억원으로 급감
과열이 해소되며 증시가 순항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

미래에셋 "스페이스X급 대박 더 있다"…개발 차익만 2조라는데

매일경제 https://zrr.kr/Kl3KtV

미래에셋그룹이 호텔 인수에 투입한 자금 3800억원 중 미래에셋생명은 1000억원을 출자해 현재 조 단위로 예상되는 개발 차익의 수혜를 가장 크게 기대 가능
호주 포시즌스 호텔 개발 성공 사례는 미래에셋생명이 추진 중인 '한국판 버크셔 헤서웨이' 모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

보험사, 포용금융에 5년간 2조원 푼다

매일경제 https://zrr.kr/1mbNSf

보험업계가 앞으로 5년간 '포용 금융' 지원에 약 2조원을 투입
무료 상생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정책대출을 받을 때도 보증료를 줄여주는 방식이 적용

'비트코인에 1250% 위험가중치' 재검토…"완화땐 막대한 유동성 유입"

이데일리 https://zrr.kr/oerbTP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 위험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규제가 올해 개정 예정
미국은 벌써부터 90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

올 韓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반토막'…코빗은 '0'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jgqnoV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해 들어 신규 코인 상장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상장 건수는 감소했지만 검증된 코인을 중심으로 상장 문턱을 높이며 품질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